

멀시받던 가객들의 후원자 신재효

구한말 무렵 향간에는 타령 한 곡조가 불려지고 있었다.
“에헤에헤 나하에야 / 한량 중 몇 알기는 / 고창 신외장이 날개라.”
후일 판소리 여섯마당의 집대성자로 민족문학사에 입적된 동리 신재효(1811~1884)가 바로 몇쟁이 ‘고창 신외장’이었다.
500년 조선왕조가 일락서산(日落西山)의 몰락으로 치달을 무렵 신재효는 한 많고 설움 깊었던 가객들의 흠어진 노래를 모아 민중적 연희양식으로 정착시킨 장본인이었다.

신재효 이전에 판소리는 창작자의 정체가 알려지지 않은 채 천민계급 가운데 하나였던 ‘소릿광대’에 의해 구전되어오고 있었다.
일설에 따르면, 영조 30년(1754) <춘향전>의 한역가(漢譯歌)가 나왔고 순조시대에 판소리 열두마당이 정립되어 있었다고 한다.

판소리 열두마당은 <춘향가> <심청가> <배비장타령> <가루지기타령> <강릉매화전> <가짜신선타령> <홍부전> <옹고집전> <토끼타령> <무숙이타령> <장끼타령> <적벽가> 등을 말한다.
근엄한 도학자들이 규율 바른 시조와 고아한 가사를 읊조리고 있을 때, 하층계급들은 소릿광대들의 눈물과 조롱, 익살이 어우러진 판소리에서 자신들의 정서적 카타르시스를 발견해냈다.

광대들은 고수를 데리고 마당놀음에 끼어 돌아다니면서 양반들에게는 천민으로 멀시받았지만, 민중들에게는 그들 대신 울어주고 웃어주고 비꼬아주는 귀한 존재로 대접받았다. 서민문학의 길은 ‘소리의 유랑민’인 광대들이 닦고 있었다.

그러나 광대들은 소리에는 통달했는지언정 문장에는 문외한들이었다. 그들의 노래는 언제나 소멸될 운명에 처해 있었다. 그런 광대들의 든든한 후원자가 있었으니 천민과 양반 사이에 낀 존재였던 서리층이 그들이었다. 서리들은 광대들의 길을 따라 흠어져버리고 사라져버리는 판소리 사설을 전승시키고 정착시켜준 민중문학의 수문장이었다. 신재효가 서리 출신이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신재효는 이제에 밝았던 아전 신광흡의 아들로 태어났다. 풍류객으로 이름이 높았던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던 그는 어릴 적부터 음율을 익히고 치재(治財)의 재능을 발휘했다.
돈으로 호장이란 벼슬을 산 후 그의 재산과 권세는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다. 그의 문전은 점차 소릿광대들의 발걸음으로 닳아가기 시작했다. 그는 광대들의 후원자로 머물지 않고 채선이란 기생을 지도해 일세를 풍미하게 하기도 했다.

신재효는 말년에 판소리 여섯마당을 다듬어서 후대에 남겨놓음으로써 국문학사의 한 장을 차지하는 영예를 누리게 된다.

오늘날 신재효의 작품으로는 <춘향가> <심청가> <홍부타령> <토끼타령> <적벽가> <가루지기타령> 등이 남아 있다.
그가 정리한 판소리 열두마당은 광대들의 거친 사설을 다듬고 그것을 문학적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후대 학자들의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신재효의 업적 가운데 하나는 민중의 성적 에너지가 응축된 <가루지기타령>을 완전한 형태로 보존·전승했다는 점이다.
현재 <가루지기타령>은 신재효본이 유일하다. 봉건사회에서 성(性)은 성리학적 윤리의 높은 담장을 넘어서지 못했다. <가루지기타령>은 봉건사회의 성적 억압을 위반한 문제작이었다.
자신의 재능으로 양반층으로 상승한 그가 성에 대한 노골적인 묘사로 시골벽격한 타령을 보존했다는 것만으로도 그의 개방성을 엿볼 수 있다.

국문학계에서는 신재효의 업적을 네 가지로 정리한다.
첫째는 합리성이다. 신재효본 판소리는 황당무계한 사설을 합리적인 문학으로 상승시켰다.
둘째, 그는 에로티시즘을 문학의 한 범주로 승인했다. 위선적인 유교윤리에서 금기시되던 성적 관능은 그의 노력으로 온전히 복원될 수 있었다.

셋째, 그는 민중생활의 진실을 외면하지 않았다. <적벽가>에서 전쟁에 지친 병사들의 애달픈 정조를 살린 대목에서 이를 엿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그는 약자를 동정할 줄 알았다. <홍부타령>에서 가난의 천형에 시달리는 홍부를 연민어린 눈으로 형상화한 장면이 한 예다.
신재효가 없었다면, 소릿광대들의 절절한 가락들은 영원히 어둠 속에 묻혀버렸을 것이다. 그는 민중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그것을 후대의 예인들에게 귀중한 문학적 자산으로 물려주었다.

그의 열정적 후원이 없었더라면 오늘날 민족문학의 한 장은 무척 허전했을 것이다. KOVA